

논문

세계화(지구화) 이론의 모순*

한수경(마이그린뉴스/인천대)

< 국문초록 >

세계화 혹은 지구화(globalization)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것 중 하나로, 일부 학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문제와 새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논리로 설명하려 해 왔다. 많은 세계화 이론가들은 세계화는 문화(미디어)제국주의나 미국화가 아니라 주장하며, 또한 이것이 동질화나 표준화로 간주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 한다. 그들의 논거에 의하면, 지역 또는 고유문화는 흔히 서구문화나 미국문화로 인식되는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글로벌컬화(glocalization)’나 ‘혼종화(hybridization)’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영향을 받은 일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세계화 설명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 즉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transcultural communication)’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국제(국가간)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의 의미, 즉 동질민족문화 개념으로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 의거한다. 많은 학자들은 한 사회 및 개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세계화의 결과로 국민국가(nation states)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결국, 이것이 다문화 혹은 혼성문화 성향을 지닌 ‘지구촌화’, ‘글로벌 사회’나 ‘글로벌 문화’란 개념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론적 접근엔 경험적 검증이 빠져 있다. 세계화 이론가들에 의하면

* 이 논문은 한국언론학회 <201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화와 같은 메타이론은 구체적 경험주의를 기초로 하나, 이론의 전체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세계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격차, 식민지 역사 또 다문화 사회구성요소들이 이런 세계화의 이론적 접근에선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왜 세계화(globalization) 이론의 가설들이 정당화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주제어: 세계화(지구화), 문화(미디어)제국주의, 글로컬, 혼성(종)화, 국제커뮤니케이션,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

I. 서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즉 “국가 영역 간의 연계가 심화되는 과정”¹⁾이란 개념과 구별되어 사용되는 국가 영향력 약화의 의미가 내포된 ‘세계화’ 또는 ‘지구화(globalization)’²⁾란 용어는 이미 진부하리만큼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용어를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방식들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현상을 증명하거나 또는 이를 반박하는 논리에도 적지 않은 혼동을 가져왔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는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며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세

1) 이동수,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학보』, 제42집 제2호(2008), 5.

2) 이동수(2008)는 ‘globalization’을 ‘지구화’로 번역하고, 이를 근대 주권국가의 약화를 전제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망”(5쪽)으로 정의하고,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5쪽)로 설명하며 두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가능한 이러한 번역용어에 따른 구별, 즉 ‘지구화’와 ‘세계화’란 단어 사용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다른 언어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용어를 ‘세계화’ 또는 ‘지구화’로 번역하고, 편의상 국내에서 주로 말해지는 ‘세계화’로 통일해 사용한다.

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현상을 이 용어를 빌어 설명하며, 변화하는 현 세계를 설명하는 메타이론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그간 ‘세계화’ 혹은 ‘지구화’ 담론을 생산해 ‘세계화’시킨 장본인인 서구 학계에서는 ‘세계화’ 논리에 동조하는 주장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늘 세계화를 외치던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슬그머니 ‘세계화’ 또는 ‘지구화’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물론 그 이론적 배경이나 이를 주장하던 학자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세계경제위기 이전까지 거의 모든 문구에 사용되던 것에 비한다면, 이 용어의 사용빈도는 현격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는 세계화를 주장했던 학자들이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의 미디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배경으로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용어는 어느덧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문제 많은 담론을 내포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의 세계화 또는 지구화 담론에선 미디어와 직접 관련된 문화(미디어)제국주의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비서구권의 학자들과 맑스(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한 세계화 비판 학자들은 주로 이 세계화 담론을 단지 문화제국주의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만 새로이 변형된 것으로 간주하고, 서구화 특히 미국화 또는 동질화나 표준화를 경계하며 비판해왔다. 반면 세계화를 근대성의 결과로 보는 기든스(Giddens), 워터스(Waters), 톰린슨(Tomlinson) 등의 학자들은 세계화는 문화제국주의 또는 서구화, 특히 미국화와 구별되는 현상이라 주장한다. 기존의 세계화 담론을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 또한 현 미디어에 나타난 현상을 문화제국주의나 서구화 또는 미국화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정치경제적 해석을 단선적이라 거부하고, 다원주의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초기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 및 지방을 강조한 로버트슨(Robertson)의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이 합성된 개념인 ‘글로벌리제이션(Glocalization)’은 현재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지역 또는 토착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한몫을 했다. 즉, 글로벌 문화는 지역의 토착문화를 말살시키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공존하며 발달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나 혼성 또는 합성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디티(Hybridity)가 세계화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이주민, 초국가적인 관광객의 증가, 또 미디어를 통한 세계와의 연결 및 문화교류 등은 ‘지구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로 여겨진다.

최근엔 사회학과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은 세계화를 주장하던 학자들은 논란이 많은 이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용어 대신 ‘초국가적(transnational)’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기반을 둔 문화를 강조한 ‘초문화적(transcultural)’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간 학계의 심한 비판을 받아왔던 ‘세계화’ 담론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초문화적’ 현상은 ‘세계화’를 주장하던 학자들의 세계화 설명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초기의 세계화 주창자들의 논리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고, 많은 비판으로 그 입지가 불명확해진 세계화 담론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그야말로 ‘학문적 세계화’ 추세에 뒤지고 있다 하겠다. 국내의 세계화 논리에 동의하는 학자들 역시 디지털혁명과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확산을 ‘세계화’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류’를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고, 국가정책의 일환인 소위 ‘한류의 세계화’란 틀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 미국의 할리우드에 대한 문화(미디어)제국주의의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한류’에 제기되는 문화제국주의적 비판적 시각은 결여되어 있는 반면에, 세계화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인 ‘혼종화’를 한류와 접합시켜 해석하고 있어 학문의 객관적 사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온 이 ‘세계화’ 또는 ‘지구화’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설들에 어떤 문제점들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메타이론인 세계화는 과연 현재의 변화하는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가? 둘째, 세계화는 문화(미디어)제국주의와 구별되는가? 셋째, 글로벌, 다문화 혹은 혼성화가 세계화의 현상인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이용으로 ‘지구촌(global village)’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세계화’ 개념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세계화’ 담론과 이론적 접근

세계화는 우선 경제적 개념으로 출발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맑스주의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또는 신보수주의적(neo-conservative) 시각으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다. 맑스의 영향을 받은 월러스타인(Wallerstein 1979)은 ‘세계체제이론(world system theory)’과 종속이론으로 경제 결정론적인 세계체제를 설명한다. 오마에(Ohmae 1992, 2000)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완벽한 작동으로 인해 국가의 영향력 축소는 물론 국가의 불필요함을 주장하며 ‘국가의 죽음’까지 선언

한다. 하지만 오마에의 주장과는 달리 1997~8년 아시아경제위기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가 말해주듯 자본시장의 자율적 방임은 세계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자본시장이 만들어 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그의 이론을 반증하고 있다.³⁾

오마에와 같은 자유시장주의 신봉자들이 경제가 정치에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 반면, 히어스트와 톰슨(Hirst & Thompson 1998)은 모든 국가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연계는 단지 OECD 국가들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오마에와는 달리 길핀(Gilpin 1987, 2000, 2001)은 경제의 세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헤게모니는 여전히 국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길핀에 따르면, 시장의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선 그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결국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 카이저(Kaiser 1998)는 국가의 영향력 상실을 그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추진해온 국가 자체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페래톤(Perraton, Goldblatt & McGrew 1998)을 비롯한 학자들은 국가의 영향력은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물량과 자본의 흐름이 커져 글로벌 경제관계와 무역관계가 국민국가들과 권력투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무대에는 국민국가 이외에 다국적 기업들과 초국가적 기구들 등 보이지 않는 다수의 행위자들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변화했으며, 국민국가가 더 이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 국제정치에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3) Su-Kyung Han, *Globalisierung und Regionalisierung der Medien in Asien* (Akademischer Verlag München 2010), 25. 이하 GRMA로 약함.

4)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88.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경제 혹은 정치 결정론적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견해는 너무 단선적인 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계는 다원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얻어 왔다. 주로 워터스(Waters), 기든스(Giddens), 벡(Beck)과 로버트슨(Robertson) 등의 사회학자들은 세계화를 정치, 경제, 환경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일 개개인의 사고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화는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닌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벡(Beck 1997)은 세계화, 즉 ‘globalization(Globalisierung)’을 ‘globalism(Globalismus)’과 ‘globality(Globalität)’의 개념과 구별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globalism’은 세계시장지배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경제적 측면으로 모든 차원을 단순화시켜는 것이다. ‘globality’는 서로 격리되지 않은 채 점차 세계사회(Weltgesellschaft)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이 ‘세계사회’는 맥루한의 ‘글로벌 촌락(global villiage)’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반면에, ‘globalization’은 국가, 다국적 행위자들을 통한 주권, 방향성, 정체성과 네트워크들이 서로 침투하고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또 지역문화가 중요시되며, ‘제3의 문화’가 탄생된다고 보고 있다. 벡의 세계화는 세계국가도 세계정부도 없는 세계사회를 말하며, 경제, 환경, 커뮤니케이션, 문화, 시민사회의 차원은 물론 더 많은 곳에 침투해 있

5) Johnathan Perraton, David Goldblatt & Anthony McGrew, Die Globalisierung der Wirtschaft In *Politik der Globalisierung*. U. Beck (Hrsg.), (Frankfurt/Main: Suhrkamp, 1998), 166-168; Edgar Grande, Globalisierung und die Zukunft des Nationalstaaten. In *Die Modernisierung der Moderne*. U. Beck & W. Boß (Hrsg.) (Frankfurt/Main: Suhrkamp, 2001), 273-274.

어 결국 이것이 개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⁶⁾

워터스(Waters 1995, 2001)와 같이 세계화를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대성에서 찾고 있는 기든스(Giddens 1996, 1999, 2001)는 글로벌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관계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기술인 위성 등의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접촉의 심화가 우리의 생활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⁷⁾ 그에 따르면, 세계화는 ‘위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되살아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세계화는 국가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지역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것이 전 세계 국가들의 위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⁸⁾ 이렇게 기든스에게 세계화는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공간과 시간의 변형”⁹⁾을 의미하는 것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 훨씬 빨리 다가오며,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 결정들은 종종 글로벌적인 영향을 준다”.¹⁰⁾ 특히, 그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대성의 현상과 연관성 속에서 세계화를 근대성의 결과로 간주한다.

기든스는 또한 세계화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의 혼합으로 촉진된 과정들의 한 복합적인 묶음”¹¹⁾으로 간주하고, 네 개의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한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 국민국가 시스템, 군사적 세계질서와 국제적 노동 분업이 서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물론 기든스의 이 네 개의

6) Ulrich Beck, *Was ist Globalisierung? Irrtümer des Globalismus-Antwort auf Globalisierung*(Frankfurt/Main: Suhrkamp, 1997), 28-32.

7) Anthony Giddens, *Der dritte Weg*.(Frankfurt/Main, 2001), 23.

8) Anthony Giddens, *Entfesselte Welt*.(Frankfurt/Main, 1999), 44.

9) *Ibid.*, 43.

10) *Ibid.*, 46.

11) *Ibid.*

차원에 문화는 제외되어 있지만, 각 차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슨(Robertson 1998)은 세계화를 설명함에 있어 지역성을 더욱 강조하며,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로컬을 글로벌의 한 구성요소로 여긴다. 이에 그는 ‘global’이 아닌 일본 농업경제 및 상업에서 유래한 개념을 차용한 ‘glocal’, 즉 ‘globalization’이 아닌 ‘glocalization’이란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서로 상반되게 여겨지는 동질화나 이질화 등의 경향들은 보완적이면서 서로 침투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¹³⁾

로버트슨(Giddens 1992)은 기든스와 벡과 마찬가지로 인간 개인을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개인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글로벌 영역(global fields)의 다원적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여기에 ‘globality’와 ‘global human-condition’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세계화는 이 ‘globality’의 네 부분들, 즉 개인, ‘국민사회’, ‘사회의 국제적 시스템’들과 ‘인류’ 사이에서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현상학적인 연결을 통해 형성된다. 여기서 네 요소는 ‘global human-condition’의 기본구성요소를 이루는데, 현재의 구체적 세계와 인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이 구성요소는 ‘globality’의 상징적 구조로 인간이 지닌 세계에 대한 광대한 의식을 설명한다. 결국, 이 다원적 모델은 인간 삶의 일반적인 조건을 말하는 ‘global human condition’을 이룬다.¹⁴⁾

12) Ibid., 92, 96 & 100.

13) Roland Robertson *Glokalisierung: Homogenität und Heterogenität in Raum und Zeit*. In *Perspektiven der Weltgesellschaft*. U. Beck (Hrsg.)(Frankfurt/Main 1998), 193 & 216.

14)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London, Thousand

로버트슨은 이 다원적인 세계화 설명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적, 인종적, 또는 지역적 의식은 점점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로버트슨은 이러한 것들 모두 세계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세계’를 균일한 형태가 아닌 느슨한 것으로 규정하며, 반면에 국가들은 국가경계가 교차하는 경향이 잦아짐에 따라 분쟁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화를 “한 아주 오래된, 고르지 않은 복잡한 과정”¹⁵⁾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언급한 세계화의 역사성뿐 아니라 세계화가 불균형을 내포한 다양한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로버트슨은 세계화를 설명함에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고, 또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기든스와 유사점을 지니고 있지만, 세계화를 근대성의 결과로 보는 기든스의 견해엔 동의하지 않는다.¹⁶⁾

또한 세계화를 ‘서구의 근대성 기획’으로 보는 주장에도 반대 입장이다. 로버트슨은 문화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미디어를 통한 서구화, 특히 미국화 담론을 비판하며, 미국사회 또한 문화적으로 혼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야말로 “미완성된 세계화의 구현”¹⁷⁾인 것이다. 이는 글로벌과 로컬의 결합인 글로컬(global)과 혼성화(hybridization)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와 관련해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

Oaks & New Dehli, 1992), 160-161. 이하 *Globalization*으로 약함; Su-Kyung Han, *GRMA*, 36-37.

15)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10.

16) Su-Kyung Han, *GRMA*, 37.

17) Roland Robertson, Was heißt nun Amerikanisierung? In *Globales Amerika?* U. Beck, N. Szaider, R. Winter (Hrsg.)(Bielefeld, 2003), 332.

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설명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설들을 유출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적 시각의 부정, 국가의 영향력 축소,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인간 개인의 세계에 대한 의식의 고양,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공존, 즉 혼성화이다.

Ⅲ.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세계화 이론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의 세계화 이론에 대한 담론은 주체적 이라기보다 우선 타 학문인 경제학, 정치학 및 사회학에서 이미 거론되어 온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학자들은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비판하며, 다원주의적 해석의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디어 학자들은 특히 사회학자들의 이론적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문화연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또한 현재를 ‘지구촌’ 혹은 ‘세계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포트너(Fortner 2008)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역사를 시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넷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협정시대(1835~1932), 정치화 선전의 시대(1933~1969), 복잡성의 증가와 도전의 시대(1970~1989), 그리고 신 국제질서와 지구촌시대(1989~현재). 즉, 현재는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경제는 국민국가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을 통한 맥루한적 ‘지구촌’의 현실화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이다.¹⁸⁾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기업의 미디어생산의 독

18) 포트너에 의하면,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확산은 문화의 동질화를 가속시키며, 헌팅

과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비국에 머물고 있으며, 시장기능의 공간적 확대로 지역 간 상호의존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 즉 이데올로기의 붕괴, 초국적기업들의 급격한 확장, 전 지구적인 통신망과 네트워크의 보편적 이용, 국제기구와 NGO들의 위상 강화로 인해 결국 국민국가의 약화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¹⁹⁾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세계화 이론은 사실상 문화제국주의나 종속이론의 반대급부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 학파간의 논쟁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로버트슨과 같은 학자들은 ‘글로컬(glocal)’이란 개념으로 동질화, 표준화, 획일화와 같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비판을 모두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즉, 그의 세계화 설명엔 모든 부조화한 것들까지 세계화의 현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마치 현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에 기반을 둔 문화의 혼(중)성(hybridity) 혹은 혼성(중)화(hybridization)’를 또한 현재의 세계화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학자들은 한류 현상을 이 혼성(중)화 이론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Ryoo 2009; 심두보 2004; 김수정 & 양은경 2008).

현재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타 학문에서 거론된 세계화를 설명하는 가설들의 틀에서 좀 더 이론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세계화의 학문적 조류에 맞춰 기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더욱 폭넓은

턴의 주장처럼 문화가 갈등의 요소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팅턴적인 해석은 서구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인종적 차원이 아니라 지배와 권리 침해 혹은 경제적 불평등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Su-Kyung Han, *GRMA*, 124-130, 131-157 참조.

19) Robert L. Fortner, “서론”, 황상재, 전범수, 정윤경 (편), 『국제커뮤니케이션』(나남, 2008), 27-28.

영역을 포괄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이란 확장된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국제 또는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분야를 헵(Hepp, 2006)은 네 영역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즉, 국제(국가간)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communication), 문화간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발전커뮤니케이션(development communication), 그리고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transcultural communication)이다. 이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영역엔 세계화이론, 시스템이론, 그리고 문화연구를 포함하며, 이 연구 분야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헵은 기존의 국제(international)와 문화간(intercultural)커뮤니케이션은 현 세계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초문화적(transcultural)’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이 두 커뮤니케이션은 국가와 문화의 경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영역으로 문화경계와 국가경계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 즉 세계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계 안에 동질적인 민족문화에 근거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international)’라는 개념보다는 ‘초문화적(transcultural)’ 커뮤니케이션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헵은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transcultural communication) 영역을 “국가와 문화를 넘어선 변환과정들에 관련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과정들”²⁰⁾의 연구로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시스템이론과 문화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의 세계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문화연구 학자들이 겹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사실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디어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을 헵은 세계화 이론가들인 아파라두라이

20) Andreas Hepp, *Transkulturelle Kommunikation*(Konstanz, 2006), 20. 이하 KT로 약함.

(Apparadurai), 기든스(Giddens), 톰린슨(Tomlinson)과 하네즈(Hannerz) 등의 주장에 근거해, “미디어를 통한 연결들의 세계적 증가”²¹⁾로 정의하고, 다원적인 메타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전자 및 디지털 미디어(전신, 전화, 라디오, 위성TV, 인터넷, 핸드폰 등)가 생겨난 이래 한편으론 이 커뮤니케이션상의 연결이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일상화되었다(…)”²²⁾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웹 또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세계화를 문화의 동질화, 표준화 또는 미국화와 구별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담론과 함께 다시 쟁점화 된 문화(미디어)제국주의 논쟁은 톰린슨(Tomlinson 1991, 1997, 2002)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²³⁾ 이렇게 기든스나 워터스와 함께 톰린슨은 세계화를 개발도상국들에 확산되어 있는 서구의 대중문화, 특히 자주 거론되는 미국화를 비롯한 문화적 영향을 근대성의 생산물로 간주한다.

세계화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크로츠(Krotz 2005)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인 ‘미디어화(Mediatisierung, mediatization)’를 세계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즉, 미디어 특히 컴퓨터를 매개로 한 도처에 산재하고, 또 끊임없이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증명하는 예로 컴퓨터게임의 세계와 같은 상호작용하는 세계,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크로츠(Krotz 2005)는 세계화를 “오늘날의 전 세계 발전을 기술하고 또 분석하는 것을 돕는 메타과정”²⁴⁾으로 종합하는데, 즉 세계의 발전상을 설

21) Ibid., 10.

22) Andreas Hepp, Friedrich Krotz & Carsten Winter, Einleitung.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 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C. Winter (Hrsg.), (Wiesbaden, 2005), 7.

23) Andreas Hepp, TK, 65.

명하고, 새로운 발전의 다양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원적 과정으로 보는 메타이론인 것이다.²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논의되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는 세계화 이론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달, 즉 위성 및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며, 둘째는 이러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용을 통한 문화적 변형이다.²⁶⁾ 결국 세계화 이론의 축을 이루는 이 두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세계화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IV. 세계화(지구화) 이론의 모순과 문제

1. 메타이론인 세계화

학문세계에서 ‘세계화’는 유행어가 아닌 이론이므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하지만 세계화의 영향은 거의 모든 인간의 삶에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학자들의 가설의 광대함으로 이론적 검증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론은 보편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메타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메타이론들은 부분적으로는 구체적 경

24) Friedrich Krotz, Von Modernisierungs-über Dependenz zu Globalisierungstheorien.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C. Winter (Hrsg.), (Wiesbaden, 2005), 24. 이하 MDG로 약함.

25) Friedrich Krotz, Andreas Hepp & Carsten Winter, Einleitung. In *Theorien der Kommunikations-und Medienwissenschaft*. F. Krotz, A. Hepp, C. Winter (Hrsg.), (Wiesbaden, 2008), 12-14. 이하 E-TK로 약함; Su-Kyung Han, GRMA, 51; Su-Kyung Han, *Why cannot globalization as meta-theory describe the world today?* Paper presented in 19th AMIC Conference in Singapore 2010. 이하 WGM로 약함.

26) Su-Kyung Han, WGM, 6.

힘을 토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험적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사실 내용분석과 표준화된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또는 질적 조사연구는 연구대상이 ‘세계’, 즉 200개의 국가가 넘는 지역에 약 6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전 지구’라는 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든스의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로버트슨의 ‘세계에 대한 인간 개인의 인식변화’를 측정하려면, 전 세계의 연구자 관계망부터 요구되며, 또한 시간적 간격을 둔 미디어 이용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²⁸⁾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을 반증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화’ 이론은 결국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화 이론을 설명하는 가설들에 나타난 개념과 표현의 모호성이다. ‘점차적으로’, ‘고르지 않은’, ‘복잡한’, ‘다원적’, ‘우리’, ‘인간’, ‘지구’, ‘세계’ 등 구체적이지 않은 광대하고 막연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²⁹⁾ 물론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설이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세계화 이론엔 개념의 모호성과 의미해석의 자율성이 지나쳐, 이론의 반증을 더욱 어렵게 한다. 반면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중에서 세계화 이론에 적합한 사례들을 필요에 따라 ‘경험적’ 예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된다.

또한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학자들 간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글로벌 문화(global culture)의 설명과 이해도 다양하다. 더욱이 ‘글로컬(glocal)’은 이런 불명확한 개념의 합성어로 그 의미는

27) Friedrich Krotz, Andreas Hepp & Carsten Winter, *E-TK*, 12-14; Su-Kyung Han, *WGM*, 8.

28) Su-Kyung Han, *WGM*, 7-8.

29) *Ibid.*, 7.

더욱 애매하다. 글로벌 문화 또한 학자들은 서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서구의 상품문화, 지역(local) 문화들이 확장된 연결고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그리고 이미 혼성된 문화들의 글로벌 혼성이다.³⁰⁾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세계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모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서구화’ 또는 ‘미국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들어온 것을 ‘글로벌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각 수용지역을 ‘로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글로벌이 ‘서구’나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디어의 세계화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미디어)제국주의 논쟁도 불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특히 영미권의 미디어를 제외시킨다면 미디어의 세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미약하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를 ‘서구화’나 ‘미국화’와 동일시하는 주장들을 부정하는 세계화 주창자들은 사실상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또 ‘로컬(local)’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서구나 미국은 글로벌지역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로컬지역인가? 서구지역 이외의 지역은 글로벌이 될 수 없나? 또 미국과 서구 지역도 로컬인가? 아시아의 부탄 문화와 아프리카의 토고 문화의 혼성도 글로벌 문화로 이해될 수 있는가? 여기서도 ‘로컬’ 개념의 의미와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불분명하고 애매한 가설들로 채워진 세계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세계와 관련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누가 주로 생산, 배포하고 있고, 그 수용자는 누구인지부

30) Su-Kyung Han, *WGM*, 8; *GRMA*, 55-59;

터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나타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서구, 특히 미국의 미디어 생산은 세계적으로 절대적이다.³¹⁾ 미디어를 생산, 배포할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없는 국가가 문화(미디어)제국주의자가 될 수는 없기에, 문화(미디어)제국주의를 경계하는 학자들이 세계화를 ‘서구화’나 ‘미국화’와 관련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객관적 자료를 통해 미디어 생산주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세계화 이론에선 그 정확한 주체에 대해선 함구하고, 대신 글로벌이란 개념으로 ‘막연화’시키고 있다.

2. 국민(민족)국가의 개념

세계화 이론을 설명하는 초문화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초문화적(transcultural)’이란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제(international) 또는 문화간(intercultural)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를 한 국가 안의 동질문화를 말하는 ‘민족국가 속의 문화’ 개념으로 현 세계의 현상, 즉 ‘세계화’를 서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국가’란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오류다.

일반적으로 ‘국가’란 개념을 서구 유럽중심으로 생성된 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또는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토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국가’의 개념엔 국가의 경계와 문화의 경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탄생한 근대국가체제는 사법적 관할권과 정치적 권위의 행사를 국가별로 나누어진 영토적 경계에 바탕을 두게 했으며, 그 공간 내에서의 배타적 주권은 영토 내의 국가가 갖게 되었다. 한편

31) Su-Kyung Han, *GRMA* 자료 참조.

1789년 프랑스 혁명시대에 이르면 한 국가 내의 주권의 소재가 군주가 아닌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귀속됨으로써 국경 안의 모든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갖고 국가의 주체가 되었으며, 20세기 말까지 이런 국민국가는 동질적인 문화를 지닌 국민들로 이루어진 정치체제의 기본단위로 간주되었다.³²⁾

하지만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민족국가의 개념과 일치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다인종, 다종교 및 다언어 사회, 즉 다문화 국가들이다. 이런 오류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민족국가를 형성한 몇몇 유럽 국가들의 유럽 중심적 사고체제에서 생겨나 세계로 퍼진 것으로, 특히 서구 학문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현상이다. 아시아에선 겨우 한국과 일본 등 일부만이 이 민족 또는 국민국가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이 이미 제기한 것처럼, ‘국가’와 ‘문화’의 경계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한 국민(민족)국가들은 더구나 자연발생적이 아닌, 오히려 국어의 사용과 같은 한 언어정책과 표준화된 교육정책으로 문화의 동질성을 인위적으로 창조해 왔다.³³⁾ 이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한 의미의 민족국가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언어, 민족, 종교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다양하다. 다문화 국가인 인도의 경우 18개에서 24개까지의 공식 언어를 채택하고 있고, 600개 이상의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까지 합산한다면 천 개 이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실상 몇 개의 언어가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도 알 수 없다.

32) 이동수,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학보』, 제42집 제2호(2008), 6.

33) Su-Kyung Han, *WGM*, 17.

공식 언어의 수도 늘 변하는 실정이다. 한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네 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국가이다. 즉, ‘다문화(multiculturalism)’ 개념 혹은 문화적 혼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아프리카의 경우, ‘국가’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84/5년에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열렸던 ‘베를린 아프리카 회의(Berliner Afrika-Konferenz)’의 결과물로 53개의 국가가 형성되었다.³⁴⁾ 아프리카 민족, 언어 및 전통적 관습, 즉 문화적 경계를 무시한 인위적 국가경계선은 20년 이상을 끌어온 수단의 시민전쟁과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수단의 경우 아랍권의 북수단과 남수단은 민족 및 종교적인 면에서 다르며, 독립된 국가의 형성을 위해 준비 중인 남수단의 경우 오히려 우간다의 북쪽지역의 민족과 유사하다. 이런 문화의 다양성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인들은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화와 인위적인 국가의 형성과정을 정작 창조자인 유럽인들의 기억에선 이미 사라진 형국이다.

말하자면,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의 ‘국제(international)’의 개념에는 위에서 언급한 소수의 유럽 중심적 사고의 틀이 아니라, 다수의 세계 국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미 ‘초문화적(transcultur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국가’란 개념의 정확한 이해이다.

3. 세계화와 불균형의 관계

세계화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세계에 대한 설명엔 기존 국제커뮤니케이

34) Su-Kyung Han, *WGM*, 17.

션 연구영역인 발전커뮤니케이션, 즉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문화제국주의 이론에서 문제시 되었던 불균형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³⁵⁾ 그 이유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이론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시작부터 제외되어 있다.³⁶⁾ 크로츠의 지적처럼, ‘디지털 격차’ 문제는 세계화 이론에선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³⁷⁾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위성TV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화 이론의 설명에서 기든스와 로버트슨 등이 말하는 인간, 즉 ‘개인’이나 ‘우리’의 개념에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이미 같은 사이버 촌락의 주민이 되었지만, 단 여기서의 ‘우리(Wir, We)’는 우선적으로 부유한 산업국가의 주민들을 의미한다.”³⁸⁾ 다시 말하면, 세계화 이론가들은 ‘세계’를 설명하고 분석한다고 하지만, 정작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이미 제외시켜 놓고 세계화를 기술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세계’의 개념을 단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톰린슨 등이 말하는 뉴미디어를 뜻하는 미디어 기술의 세계화가 문화적 영향을 가져온다(Tomlinson 2006)고 하는 해석 또한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28.7%(2010년 6월 30일 기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역으로 전 세계의 70%나 되는 인구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을 제외하고도 56%의 세계인

35) Friedrich Krotz, *MDG*, 37.

36) Su-Kyung Han, *GRMA*, 52.

37) Friedrich Krotz, *MDG*, 37.

38) Gerd Hallenberger, Vergleichende Fernsehprodukt- und Programmforschung.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 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 C. Winter (Hrsg.)(Wiesbaden, 2005), 184.

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21.5%, 또 세계인구의 14.8%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현재 겨우 10.9%에 불과하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세계인구의 70%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이용률은 미비한 상태로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인 유럽(인구: 11.9%)은 58.4%, 북미(인구: 5%)는 77.4%, 그리고 호주와 오세아니아(인구: 0.5%)는 61%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 지역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인터넷 이용자들은 할렌베르그의 말처럼 주로 OECD 국가를 비롯한 경제 산업국에 사는 사람들로 ‘글로벌 촌락의 주민’들인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인터넷 이용자의 50.9%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인구가 13억이 넘는 중국엔 인구의 31.6%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 인구가 거의 12억에 달하는 인도의 경우 겨우 6.9%(2008: 7.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그야말로 극소수 사람들만이 인터넷이란 뉴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시아 인구의 거의 80%와 아프리카 인구의 거의 90%가 아직 인터넷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오늘의 21세기 사람들이 아직도 20세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세계 인구 68억 중 거의 50억에 달하는 인간 개개인은 과연 세계를 설명한다는 이론에서조차 거론되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들인가? 아니면 이들은 지구촌 인간들이 아닌 외계인들이란 말인가? 과거의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가, 또 그에 부합하거나 추종하는 부류의 세계를 오늘날도

소위 세계화 이론가들은 여전히 ‘세계’로 여기고 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는 물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올드미디어’조차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겐 사치이다. 톰린슨과 헵 등 세계화 이론가들이 말하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일상화는 세계적으로 볼 때 소수의 특권층이 누리는 혜택이라 하겠다. 전통 미디어들의 소유 또한 산업국들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미디어 집중과 관련된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³⁹⁾

핸드폰의 이용률을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이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핸드폰이 아직 컴퓨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하루에 1달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겐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사상최대일 뿐 아니라, 현재 굶주리고 있는 세계의 인구가 사상최대인 10억에 달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및 사회적 관계망을 세계적 차원으로 논하는 ‘테크놀로지’ 신봉자들인 세계화 이론가들에게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 사상최대의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런 미디어 기술의 무소유에 대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데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비용’이다. 개발도상국들 및 미개발 지역에선 불합리하게도 미디어 마련과 이용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09년 ITU의 세계 150개국 비교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및 경제 산업국

39) Su-Kyung Han, *GRMA*, 99.

들의 사람들은 핸드폰 및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사용에 평균적으로 월급의 1.6%를 지불하고 있어, 이런 뉴미디어 이용은 그야말로 일상화되어 있다 하겠다. 하지만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세계의 80%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핸드폰 및 뉴미디어 이용에 평균적으로 월급의 20%나 되는 높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더구나 25개 경제선진국에선 평균적으로 월급의 1% 정도만을 지불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0.4%, 미국은 0.5%로 더욱 저렴하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인 25개의 경제저개발국에선 월급의 40%에서 심지어 72%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⁴⁰⁾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기 위해선 보통 샐러리맨이 8개월의 월급을 꼬박 저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의 40% 이상을 사용료로 매달 지출해야 한다면,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한 어떤 누구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서구 선진국들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컴퓨터 한 대가 자동차 한 대 값과 비슷하고, 또 사용료를 월급의 40%에서 70%까지 매달 지불해야 한다면, 이런 경제부국 시민들도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은 더욱 어려워져, 1975년과 비교할 때 세계의 소비상황은 두 배나 높아진 반면, 아프리카 지역주민들의 소비는 오히려 5배나 줄었다. 또한 유엔개발기구(UNDP)에 따르면, 1960년 잘사는 세계인구의 25%와 가난한 25%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30배였던 것이 1990년엔 60배, 2000년엔 90배로 빈부격차는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벌어져 왔다.⁴¹⁾ 그렇다면 사상최대의 기근수를 기록하고 있는 2011년 현재

40) ITU [presse release]. (2009a, March 2). New ITU ICT Development Index compares 154 countries. Geneva. Retrieved 2010, May 1; Su-Kyung Han, *GRMA*, 97-98.

41) Wirtschaftsministerium Baden-Württemberg, *Unteilbare EINE WELT*. Stuttgart(2005), 20; Su-Kyung Han, *GRMA*, 378.

의 빈부격차가 줄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UNICEF와 WTO에 따르면, 25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는 인터넷은 고사하고 화장실과 같은 기본 위생시설조차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⁴²⁾

반면에 세계 총(생산)수입의 80%, 세계 총 주식의 98%, 세계 주요 금융 및 경제흐름의 80% 이상을 경제선진국(북반부)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80% 이상의 여행자들의 목적지 또한 이 경제선진국들에 속한다. 또한 기존의 경제 삼각관계인 북미-(서)유럽-(동북)아시아의 구조는 2003과 미래의 2030년을 비교 예상할 때 변화는 거의 없으며, 변화라면 단지 중국의 경제가 더욱 커진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인도 제외)등은 세계경제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다.⁴³⁾ 특히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능력이 겨우 한국의 경제능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경제 기반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미디어산업 및 문화상품과 서비스 분야에도 이 불균형의 심각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UNESCO의 통계기관(UIS)에 따르면, 2002년 인쇄, 음향 및 시청각 예술 등의 세계 무역을 유럽이 58%, 북미가 17%, 그리고 아시아가 21%(중국, 일본 등)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의 무역량은 고작 4%에 머물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UNESCO의 1994년과 2003년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의 영화와 TV산업을 제외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흐름도 미국과 서구 산업국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여기에 영화와 TV산업까지 합한다면 특히 미국의 영향이 두드러짐은 너무나

42) myGREENnews: 2.5 billion live with poor sanitation facilities. New York, Geneva, 17 July 2008.

43) Le Monde diplomatique, *Atlas der Globalisierung*. Berlin(2007), 51; Su-Kyung Han, *GRMA*, 93 & 406.

44) Su-Kyung Han, *GRMA*, 70-71.

자명한 사실이다. 2004년의 세계 50대 미디어기업 중 20개 기업의 출신국은 미국으로 전체 이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 세 미디어기업, 즉 타임워너(Time Warner), 디즈니(Disney)와 바이아콤(Viacom)의 수익을 합산한 것만도 세계 50대 기업 총수익의 25%에 이르고 있다.⁴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던 북(선진국)과 남(개발도상국)의 불균형 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세계를 설명하는 세계화’ 논리를 위해 증명하기도 어려운 일개 개인의 생활상 및 인식의 변화까지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세계의 현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할 뿐이다.

더군다나 ‘세계화’ 이론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미디어에 나타난 ‘불균형(inequality)’, ‘집중(concentration)’, ‘헤게모니(hegemony)’ 등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오히려 ‘일부’로 간주되거나 논쟁에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다. ‘미디어화(mediatization)’를 포함한 세계화는 “헤게모니적인, 민주적이지 않은 과정들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내부적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쿤치(Kunczik 1997, 2001)은 세계화를 “단선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불균형적, 또는 모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⁴⁷⁾고 지적하고 있다. 헬드(Held)는 동료학자들과 세계화를 정치, 경제 및 문화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변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Held, McGrew, Goldblatt & Perraton 1999), 그 후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문제에 대해 심

45) Lutz Hachmeister, *Wer beherrscht die Medien?-Die 50 größten Medien der Welt*. Jahrbuch 2005, München, 31; Su-Kyung Han, *GRMA*, 82-83.

46) Friedrich Krotz, *MDG*, 43.

47) Michael Kunczik, *Media giants-Ownership concentration and globalization*. (Bonn, 1997), 28; Michael Kunczik, *Globalization: News media, images of nations and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le of rating agencies*. (Deutsches Übersee-Institut Hamburg, 2001), 2.

도 있게 다루고 있다(Held 2007; Held & Kaya 2007). 벡, 로버트슨과 같은 세계화 이론가들 또한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모두 세계화 현상의 일부로 받아드리고 있어, 불균형을 당연시 할 뿐 아니라 정당화할 우려가 농후하다.

4. 문화(미디어)제국주의와 글로컬(glocal)적 혼성화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네 가지 담론으로 톰린슨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문화제국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문화제국주의로 보는 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네 가지 담론 이외에 등장하는 그의 논리의 핵심은 세계화를 비판적 문화제국주의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Schiller, Sklair, Galtung 등)의 모든 담론에 대한 반박이다. 그 중 세계화를 서구화, 특히 미국화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 문화역류 현상을 제시하는데, 브라질의 글로보(Globo)와 멕시코의 텔레비사(Televisa)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방송프로들이 다른 남미지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도 확산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역(뒤집힌) 문화제국주의(reverse cultural imperialism)’의 예인 남미 방송프로그램은 유럽의 경우 언어권과 문화권이 같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예일 뿐, 다른 유럽에선 미국의 프로그램들에 가려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유럽의 미국프로그램의 수입은 압도적이다. 또한 미국 내의 남미출신, 즉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는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화연구자들의 몇몇 미디어 수용자연구 사례들은 문화(미디어)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단골메뉴’이다.

특히나 남미의 텔레노벨라(telenovela), 한국의 한류(Korean wave), 인도

의 발리우드(Bollywood: Bombay와 Hollywood의 합성어) 등은 미국 할리우드를 모방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이다. 이런 모방 미디어가 만들어낸 문화를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남미, 한국 또는 인도의 문화로 해석하고 톰린슨이 말하는 문화제국주의 역류현상의 증거로 제시하거나, 혹은 세계화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글로컬(global)이나 혼성화(hybridization)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양한 문화의 혼성’이 아닌, 미국의 할리우드와 혼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류의 세계화’를 정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어, 세계화 현상에서 말하는 국가 영향력의 축소가 아닌, 오히려 반대로 국가의 영향력이 미디어와 같은 문화산업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미디어산업과 같은 문화산업도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OECD 국가이며, 세계경제 12위권에 드는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할리우드와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쿼터제와 같은 규제정책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TV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높은 비용과 기술적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할 미디어산업에서 프로그램과 영화의 해외수입 없이 자체제작만으로 TV채널을 유지할 수 없기에, 해외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선 쿼터제 같은 규제정책만이 빈약하지만 그나마 국내 미디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문화연구자들은 미국 또는 해외프로그램 의존도를 혼성화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컬과 혼성화 현상은 이미 500년의 식민지 역사에 걸쳐 미디어를 비롯해 식민지사회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며, 그와 동반된 그야말로 초국적, 초문화적인 400년의 반인륜적 노예무역의 역사는 인류의 혼성화를 이미 가져왔다. 또한 식민지시대의 노동력의 이동과 전쟁은 아프리카인들뿐만 아니라, 인도인, 중국인들을 세계로 이주시키는 결과

를 초래했고, 세계의 현 인종과 문화의 혼종은 일차적으로 유럽제국주의 역사의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일본과 하와이의 한국교민들도 식민지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 유럽인들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토속문화를 타자화시켜 왔고, 이를 학문까지 동원해 정당화시켜 왔다. 이 또한 문화적 혼성화인가?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채, ‘혼성화’를 마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세계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처럼,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문화 환경을 무시한 채 ‘발견’이라는 말도 단장했듯, 서구 학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을 ‘혼성’이란 단어로 새롭게 치장하고 있다. 혼성화는 이미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통해 이룩해 놓은 글로벌적 ‘과업’이다.

이 ‘글로벌컬(glocal)’의 개념은 소위 BBC, News Corp., Viacom 등 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사용하는 해외 미디어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으로(Han 2010a; Rohn 2009), 이미 식민지시대에 Havas(현 AFP), Reuters, WTB(Wolff’s Telegraphisches Bureau)와 AP, 즉 소위 세계 최초의 미디어 초(다)국적기업(TNCs)들이 세계뉴스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결국 경제적 강요로 이루어진 협력의존관계와 카르텔로 세계를 갈라 점유했던⁴⁸⁾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혹은 의도적으로 학문적 이론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문화제국주의를 반증하는 다른 예로는 수용자 연구인 ‘달라스(Dallas)’를 꼽을 수 있다. 카츠(Katz)와 리베스(Liebes)의 “Dallas(1985)” 수용자 연구와 문화연구자인 이엔 앙(Ien Ang)의 연구인 “Watching Dallas”는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모두 미디어 비판가들이 생각하

48) Winfried Schulz, Nachricht. In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E. Noelle-Neumann, W. Schulz & J. Wilke (Hrsg.)(Frankfurt/Main, 1994), 315.

는 것보다 시청자들은 훨씬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하기에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침투는 결국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미디어 수용자 연구는 ‘연구자의 거실’ 또는 인위적인 (실험)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단 한 편의 에피소드 시청’의 결과로, 시청자들의 실제 미디어 수용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실험)연구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톰린슨이 제시한 “Watching Dollas(1985)” 또한 수용자에게 단 한편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것으로,⁴⁹⁾ 실험 참가자들은 이미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미디어 수용자 연구에서처럼 단 한 편이나 몇 편의 드라마를 보고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미디어와의 접촉과 또 주변 환경이다. 한국의 경우 임산부는 태교를 위해 모차르트 등의 서양음악을 듣고, 학교 음악시간엔 서양 음악을 먼저 배우고, 어려서부터 영어교육을 받고, 디즈니 만화, 팝음악, 할리우드 영화, 뉴스, 스포츠 및 각종 쇼 프로그램과 광고 등의 서구 및 미국 미디어와 의류 및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수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는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으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한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상황과 거리가 먼, 또 25년 전의 ‘해묵은’ 단편적 실험 결과를 여전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반증의 예로 제시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전반에 걸쳐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또 서구문화를 모방해 창조된 한류를 마치 할리우드와 경쟁하는 문화현상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문화적 근접성’ 또는 ‘문화적 할인’이란 개념을 적용해 문화제국주

49) John Tomlinson,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네 가지 답론”. 『국제커뮤니케이션』. 황상재, 전범수, 정윤정 (편), 111.

의론 비판론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한국의 영상물 해외수출 및 유통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교류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데, 문제는 주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한국처럼 서구화된 중국문화권의 아시아 국가들인 일본, 대만, 홍콩 등과의 프로그램 유통을 비교하며(유세경, 2006; 유세경 & 이경숙, 2008), 또한 프로그램도 드라마에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단지 몇 편의 드라마 내용비교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모방,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국문화권에 속한 나라였고, 현재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및 미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모방하고 있는 나라로, 사실상 문화적으로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해외 영상물의 유통원인으로 간주되는 국가 간의 문화적 근접성은 오히려 한국이 늘 당대 선진국 문화를 모방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연구자들은 이런 문화적 추종을 오히려 혼성화나, 문화적 근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정운경(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접국과 프로그램선호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나 네팔 등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미디어산업이 미발달해 한국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은 예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화 이론가들과 문화수용자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화(미디어)제국주의 반박 연구와는 달리, 인도학자들의 연구들은 초(다)국적 미디어 프로그램이 수용자들의 생활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초국적 미디어와 접촉이 드문 인도의 16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한 아그라왈(Agrawal 1996, 1999)의 연구결과 언어, 생활 및 가치관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조쉬(Joshi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초국적 미디어, 소위 글로벌 미디어 시청자들의 경우 생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냈다. 즉, 글로벌 미디어 시청자들의 생활상은 소비적이며, 물질 지향적으로 변화했고, 가족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서구적 가치관인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⁵⁰⁾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세계화 이론가들과 문화연구자들은 아주 제한된 연구결과와 해석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앞에 엄연히 보이는 꼬끼리는 보지 못하고, 그 꼬끼리에 앉아있는 파리를 확대경으로 조사하는 식의 연구는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

V. 결 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세계화 이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세계를 설명하는 메타이론인 이 ‘다원적 과정’의 실상은 기존의 종속이론 및 문화제국주의 이론들을 단선적인 주장들이라고 비판하지만, 세계화 이론 속에는 그나마 과거에 거론되었던 불균형 문제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현 상황을 아예 제외시켜 놓고 시작한다. 이런 세계화 이론에서는 세계의 불균형 현상을 논하는 정치경제학적 분석들을 세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

50) Bino C. Agrawal, *Media and cultural homogenisation South Asia: A perspective*.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a and Diversity sponsored by UNESCO held on June 18-19, 1999 in Paris & *Transnational Television and Cultural Future of Asia-Pacific Region: A Case of South Asia*. Paper presented in the 20th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of IAMCR in Sydney, Australia, August 18-22, 1996; S. R. Joshi & H. Joshi,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local cultural development: A study of cultural ecology in India*.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 Unit,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Ahmedabad January 2000); Arvind Singhal & Everett M. Rogers, *India's Communication Revolution* (New Delhi,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1), 122-125; Su-Kyung Han, *GRMA*, 287-290 참조.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뉴미디어 기술과 그 기술의 이용을 통해 변환되는 사회적 문화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뉴미디어 기술을 소유한 일부 소수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한정된 공간에서의 현상을 ‘전 세계적’, 혹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확대 과장함으로써, 과거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누비며, 세계의 문화와 인류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을 생산했듯, 세계화 이론가들은 또다시 그들만의 제한된 ‘세계’를 학문이란 이름으로 재생산하며, 세계의 불균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세계화 이론에서 제외된 세계인구 중 50억에 가까운 ‘또 다른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세계를 연결한다는 뉴미디어는 고사하고,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생활조건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학자 라힘(Raheem)의 지적처럼, 유럽과 미국이 누가 더 빨리 지구를 도는지 국기를 꽂으며 경쟁을 하는 동안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아닌, 아직도 빌리지제이션(villagization)과 싸우고 있다.⁵¹⁾

이렇게 인터넷 이용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듯,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지구는 공간적으로 ‘하나’이지만,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서로 다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다른 세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근거 없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운동가들만의 목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 세계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미디어 불균

51) Tajudeen Abdul Raheem, Globalisierung aus afrikanischer Sicht. In *Regionalisierung als Antwort auf Globalisierung?* S. Kratz (Ed.), (Trier, 1996), 53; Su-Kyung Han, *GRMA*, 381.

형의 해소를 위해 미디어 학문이 합당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이론가들은 ‘세계화(globalization)’를 현존하는 현상으로 바라보며, 모든 현상들을 ‘세계화’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고, 소위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진입 전략인 ‘글로컬(global)’ 개념을 도입해 세계화를 기술하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초(다)국적 기업들(TNCs)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반면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나,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미 등 개발도상국 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는 이 세계화 담론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계’를 설명한다는 세계화 이론은 서구의 일부 세계화 학자들과 그들을 맹종하는 학자들의 제한된 담론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학문에서의 이론은 ‘환상’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세계화 이론가들의 이론은 ‘현실세계’가 아닌 ‘지구’라는 이름의 ‘상상의 세계(imagined world)’를 설명하고 있어 이론이라기보다 ‘허구(fiction)’에 가깝다.

참고문헌

- 김수정 · 양은경. 2008.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국제커뮤니케이션』. 황상재 · 전범수 · 정윤경 (편). 나남. 457-486.
- 심두보. 2004. “국제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한류와 하이브리디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2004년 11호.
- 유세경. 2006.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프로그램의 교류 현황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2006년 13호.
- 유세경 · 이경숙. 2008. “동북아시아 3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근접성: <별은 내 가슴에>, <진정고백>, <동변일출서변우> 비교분석”. 『국제커

- 뮤니케이션』. 황상재 · 전범수 · 정윤경 (편). 나남. 363-398.
- 이동수. 2008.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한국정치학회학보』, 제42집 제2호, 5-23.
- 정윤경. 2008. “수입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및 태도 비교연구: 문화적 근접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 황상재 · 전범수 · 정윤경 (편), 나남. 399-428.
- Robert L. Fortner. 2008. “서론”. 『국제커뮤니케이션』. 황상재 · 전범수 · 정윤경 (편). 나남. 17-29.
- Tomlinson, John. 2008.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네 가지 담론”. 『국제커뮤니케이션』, 황상재, 전범수, 정윤경 (편). 나남. 103-134.
- Agrawal, Bino C. 1996. *Transnational Television and Cultural Future of Asia-Pacific Region: A Case of South Asia*. Paper presented in the 20th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of IAMCR in Sydney, Australia, August 18-22, 1996.
- _____. 1999. Media and cultural homogenisation South Asia: A perspective. This paper is based on earlier paper “Media Onslaught on the South Asian Civilization: Can Diversity be Maintained?”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a and Diversity sponsored by UNESCO held on June 18-19, 1999 in Paris.
- Beck, Ulrich. 1997. *Was ist Globalisierung? Irrtümer des Globalismus-Antwort auf Globalisierung*. Frankfurt/Main: Suhrkamp.
- Giddens, Anthony. 1996. *Konsequenzen der Moderne*. Frankfurt/Main.
- _____. 1999. *Entfesselte Welt*. Frankfurt/Main.
- _____. 2001. *Der dritte Weg*. Frankfurt/Main.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New Jersey.
- _____. 2001.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Order*. Princeton, New Jersey.
- Grande, Edgar. 2001. “Globalisierung und die Zukunft des Nationalstaaten”. In *Die Modernisierung der Moderne*. U. Beck & W. Boß (Hrsg.), Frankfurt/Main: Suhrkamp, 261-275.

- Han, Su-Kyung. 2010a. *Globalisierung und Regionalisierung der Medien in Asien?* Akademischer Verlag München.
- _____. 2010b. *Why cannot globalization as meta-theory describe the world today?* Paper presented in 19th AMIC Conference in Singapore 2010.
- Hachmeister, Lutz. 2005. *Wer beherrscht die Medien?-Die 50 größten Medien der Welt.* Jahrbuch 2005, München.
- Hallenberger, Gerd. 2005. Vergleichende Fernsehprodukt-und Programmforschung.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 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 C. Winter (Hrsg.), Wiesbaden, 165-185.
- Held, David, McGrew, Anthony, Goldblatt, David, Perraton, Jonathan. 1999. *Global Transform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 Held, David. 2007. *Soziale Demokratie im globalen Zeitalter.* Frankfurt/Main: Suhrkamp Verlag.
- Held, David, Kaya, Ayse (Ed.). 2007. *Global Inequality-Patterns and Explanations.* Cambridge, MA, Polity Press.
- Hepp, Andreas. 2006. *Transkulturelle Kommunikation.* Konstanz.
- Hepp, Andreas, Krotz, Friedrich, Winter, Carsten. 2005. Einleitung.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 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 C. Winter (Hrsg.), 7-17. Wiesbaden.
- Hirst, Paul, Tompson, Grahame. 1998. "Globalisierung? Internationale Wirtschaftsbeziehungen, Nationalökonomien und Formierung von Handelsblöcken". In *Politik der Globalisierung.* U. Beck (Hrsg.), Frankfurt/Main, 85-133.
- Joshi, S. R., Joshi, Hansa. 2000.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local cultural development: A study of cultural ecology in India.*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 Unit,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Ahmedabad.
- Kaiser, Karl. 1998. "Globalisierung als Problem der Demokratie". *Internationale Politik* April 1998, Nr. 4. 53. Jahr, 4.
- Krotz, Friedrich. 2005. "Von Modernisierungs-über Dependenz zu Globalisierungstheorien". In *Globalisierung der Medienkommunikation-Eine Einführung.* A. Hepp, F. Krotz & C. Winter (Hrsg.), Wiesbaden, 21-43.

- Krotz, Friedrich, Hepp, Andreas, Winter, Carsten. 2008. "Einleitung". In *Theorien der Kommunikations-und Medienwissenschaft*. F. Krotz, A. Hepp & C. Winter (Hrsg.), Wiesbaden, 9-25.
- Kunczik, Michael. 1997. *Media giants-Ownership concentration and globalization*. Bonn.
- _____. 2001. *Globalization: News media, images of nations and th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le of rating agencies*. Deutsches Übersee-Institut Hamburg.
- Le Monde diplomatique. 2007. *Atlas der Globalisierung*. Berlin.
- Ohmae, Kenichi. 1992. *Die neue Logik der Weltwirtschaft*. Hamburg.
- _____. 2000. "The End of the Nation State". In *Globalization*. J. Beynon & D. Dunkerly (Ed.), New York, 238-240.
- Perraton, Johnathan, Goldblatt, David, McGrew, Anthony. 1998. "Die Globalisierung der Wirtschaft". In *Politik der Globalisierung*. U. Beck (Hrsg.), Frankfurt/Main: Suhrkamp, 134-168.
- Raheem, Tajudeen Abdul. 1996. "Globalisierung aus afrikanischer Sicht". In *Regionalisierung als Antwort auf Globalisierung?* S. Kratz (Hrsg.), Trier, 53-67.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Thousand Oaks & New Delhi.
- _____. 1998. "Glokalisierung: Homogenität und Heterogenität in Raum und Zeit". In *Perspektiven der Weltgesellschaft*. U. Beck (Hrsg.), Frankfurt/Main, 192-220.
- _____. 2003. "Was heißt nun Amerikanisierung?" In *Globales Amerika?* U. Beck, N. Szaider & R. Winter (Hrsg.), Bielefeld, 327-336.
- Rohn, Ulrike. 2009. *Cultural Barriers to the Success of Foreign Media Content-Western Media in China, India, and Japan*. Frankfurt/Main, Berlin, Bern, Bruxelles, New York, Oxford & Wien: Peterlang.
- Ryoo, Woongae. 2009. Globalization, or the logic of cultural hybridization: the case of the Korean wave.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9, No. 2, June 2009, 137-151.
- Schulz, Winfried. 1994. Nachricht. In *Fischer Lexikon Publizistik Massenkommunikation*. E. Noelle-Neumann, W. Schulz & Jürgen Wilke (Hrsg.), Frankfurt/Main: Fisher Verlag, 307-337.

- Singhal, Arvind/Rogers, Everett M. 2001. *India's Communication Revolution* New Delhi,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Tomlinson, John. 1991. *Cultural Imperialism*. London: Pinter Publishers.
- _____. 1997. "Cultural Globalization and Cultural Imperialism".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A. Mohammadi (Ed.), London, Thousand Oaks & New Delhi, 170-190.
- _____. 2002. "Internationalismus, Globalisierung und kultureller Imperialismus". In *Grundtexte zur transkulturellen Kommunikation*. Konstanz, 140-163.
- _____. 2006. "Your Life-To Go": Der kulturelle Einfluss der neuen Medientechnologien". In *Konnektivität, Netzwerk und Fluss-Konzepte gegenwärtiger Medien-und Kommunikations-und Kulturtheorien*. A. Hepp, F. Krotz, S. Moores & C. Winter (Hrsg.), Wiebaden, 68-78.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London, New York, Melbourne.
- Internet World Stats. (2008, December 31). Internet usage statistics Internet. Retrieved 2009, February 27, from <http://www.internetworldstats.com>.
- Internet World Stats. 2010, June 30. from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htm>.
- ITU. 2008. ICTs Statistics 2008 (ITU ICT Eye). Retrieved 2009, April 3, from <http://www.itu.int/ITU-D/ICTEYE/Default.aspx>
- ITU [presse release]. 2009a, March 2. New ITU ICT Development Index compares 154 countries. Geneva. Retrieved 2010, May 1, from http://www.itu.int/newsroom/press_releases/2009/07.html
- ITU. 2009b.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The ICT Development Index. Retrieved 2009, May 1, from http://www.itu.int/ITU-D/ict/publications/idi/2009/material/IDI2009_w5.pdf
- myGREENnews. 2008. 2.5 billion live with poor sanitation facilities. New York, Geneva, 17 July 2008 from http://www.mygreennews.com/green_world/health/health_WHOunicef_living_without_sanitation_facilities_epl.htm

【Abstract】

Self-Contradictions in the Globalization Theory

Han, Su-Kyung(myGREENnews/Incheon University)

Globaliz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ly discussed issues over the last decades. Some authors have tried to explain all problems and newly emerging changes of the world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Many globalization theorists assert that globalization is neither cultural (media) imperialism nor Americanization. It should also not be understood as homogenization or standardization.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thesis, local or indigenous cultures are not supplanted by global culture which is often perceived as western or American culture, but both coexist and complement one another in terms of ‘glocalization’ or ‘hybridization’ within the scope of globalization.

Some media and communications scholars influenced by sociology, especially cultural studies, have adopted a new explanation approach for globalization called ‘transcultural communication’. In line with the concept of ‘culture’ as homogenous national culture in the context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y state that cross-cultural and-border communication cannot be explained. Many scholars are also sure that the nation states lose their function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long with an increase of tourists, diasporas, and media communications worldwide which affects not only a society but also identities of individuals in terms of culture. This allows for a ‘global village’, ‘global society’, or ‘global culture’ with multicultural or hybrid characteristics.

However, what is missing in such a theoretical approach is an empirical verification. According to globalization theorists, meta-theories such as globalization cannot be verified, although several parts of them are based on concrete empiricism. Another problem is that the ‘digital divide’, colonial history, and multicultural compositions in many societies of the world have not been concerned in their approach.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give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the assumptions of the globalization theory are not justified.

Key Words: globalization, cultural(media) imperialism, glocal, hybridizat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ranscultural communication

접 수 일: 2011년 3월 14일

심 사 일: 2011년 4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6일